

전주시, '대중교통 시책평가' 장관표창

인구 30만 이상 C그룹 1위... 시·완주군 협업 노선개편 결정적 역할... 3.5억원 인센티브 확보

전주시가 대중교통 시책 관련 정부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1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노보텔엠베서더에서 열린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 함께 3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구성된 C그룹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또, 김상범 노선개편TF팀장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마다 실시된 정부의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2013년에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모두 하위권 점수를 받아 대중교통 시책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민선6기 출범 이후인 지난 2015년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던데 이어 올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국토부는 전주시에 대해 관광객으로 인한 도로 혼잡 완화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시터투어 버스의 기능을 결합한 명품 시내버스를 도입하는 등 도시특성에 맞춘 정책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평가항목 중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시가 완주군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60년만에 실시한 노선개편을 통



전주시시는 1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노보텔엠베서더에서 열린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 함께 3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점도 1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평가기관 관계자의 후문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선개편을 실시한 타 지자체의 경우 시민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하락했다.

이외에도 시는 △대중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대중교통 안전성제고 △대중교통 쾌적성 향상 △대중교통정보제공 △교통약자 편의증진 △주민만족도 등 19개 지표,

57개 항목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다양한 평가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를 이날 말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자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운수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가난한 사람이 버스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부자들도

버스를 타는 도시, 어쩔 수 없이 타는 버스가 아닌 버스를 타고 싶어 타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1개 시·군을 5개 그룹(A~E)으로 나눠 2년마다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91세 노모 위해 마트에서 식자재 훔쳐

어머니를 위해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13일 절도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3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마트에서 꽃게를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3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91세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마트주인은 "A씨가 어렵게 사는 꽃게를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3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연일 강추위에 도내 감기환자 속출

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에 전북지역에서 감기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기침과 몸살 같은 감기 증상으로 진료 받길 원하는 환자가 겨울로 들어서며 30~40%가량 늘었다. 특히 낮 시간에도 영하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이어진 지난 11일부터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기를 앓고 있는 직장인 박모(34·전주시 효자동)씨는 "목감기를 앓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는

다"며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게 될까봐 걱정이"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의들은 손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침과 저녁 등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외출 시 두꺼운 옷을 입어 보온에 신경을 쓰고 독감이 유행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할 것을 권했다. 이어 면역기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경우 독감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민 기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표창 3관왕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각 지난 1일과 7일 진행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표창 3관왕을 차지했다.

먼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일 열린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에서 1388청소년지원단에 소속된 공전요리과제빵미용학원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과 진로체험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센터를 이용한 한 청소년의 부모가 제출한 우수상담협동수기도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지난 7일과 8일 제주금호리조트에서 진행된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2015년 센터 개소 이래 3년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온 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 △사업 운영 성과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적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민근 기자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형 공동체 문화 싹틔워

농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결성된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대표 김성국)는 공동체 활동 수익금을 마을환경개선과 소외 계층 후원하는데 사용해 올해 정부터부터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또한, 전주시 청년들로 구성된 '청춘사진관' (대표 임기환) 공동체는 소상공인과 예비신규창업자의 홍보에 힘썼고, '뭉다운' 공동체(대표 조영미)와 '노루걸음' 공동체(대표 고영미), '동행' 공동체(대표 곡란)는 각각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돌보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전개했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온 전주시 67개 온두레 공동체의 올 한해 운

영성과는 300여명의 온두레 공동체 회원과 1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전주시 2017 온두레 공동체사업 활동 공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이 행사는 온두레공동체 회원들이 활동사항 공유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공동체의 상호연계를 통한 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67개 온두레공동체 회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그간 각 공동체 별로 추진해 왔던 사업 성과물을 토대로 공예·장터, 교육, 문화·예술, 식품, 주민자치의 5개 분야 모듬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분과별로 협업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행사는 △공동체협의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 △각 분과별로 구성된 전시품 관람 및 체험 △2017 온두레 공동체 활동 영상 시청 △1년 동안 연습한 실력을 뽐내고 싶은 공동체들의 공연 페스티벌 등 사례발표 △다 함께 하는 네트워크 파티 등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여러 공동체가 모여 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상호협력하기 위해 결성된 공동체협의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며, 향후 전주시 각종 공동체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 온두레공동체로 활동해온 전주비전포럼이 지역사회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성금 12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사업활동 공유회 22일

의미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시는 이번 활동 공유회가 시민들이 이웃과 소통하면서 함께 배우고 희망을 열어가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이 전주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뿌리깊이 정착돼 퍼져나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온두레 공동체는 본인들의 재능을 다양하게 기부해 왔고,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 돕기, 청소년 지지가금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위해 꾸준히 실천해왔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온두레 공동체 사업과 처음으로 구성된 공동체협의회에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